

#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4년 13호

냉전기 김용 무협과 태국 화인(華人) 세계:  
1960-1980년대 태국 화인 무협소설 열풍과  
태국 문화콘텐츠에 미친 영향

#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4년 13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냉전기 김용 무협과 태국 화인(華人) 세계: 1960-1980년대 태국 화인 무협소설 열풍과 태국 문화콘텐츠에 미친 영향</li><li>▶ 김용 무협소설의 남양(南洋) 전파와 화인(華人) 세계 / 김용 무협 세계관의 태국 전파와 태국식 무협 문화콘텐츠의 발전 / 냉전기 태국 화인 사회의 김용 문학 수용과 중화 정체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태국</li><li>▶ 화인 무협소설</li><li>▶ 김용 무협소설</li></ul>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4.10.01.



## 냉전기 김용 무협과 태국 화인(華人) 세계

### 순서

- I. 서론
- II. 김용 무협소설의 남양(南洋) 전파와 화인(華人) 세계
- III. 김용 무협 세계관의 태국 전파와 태국식 무협 문화콘텐츠의 발전
- IV. 냉전기 태국 화인 사회의 김용 문학 수용과 중화 정체성
- V. 결론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 I 서론

- ✔ 중국 문학사를 시대적으로 조망해 보면 당(唐)대에는 당시(唐詩)가, 송(宋)대에는 송사(宋詞)가 주요 사조였다면, 1950년대 이후 화인(華人) 사회에서는 무협이 주요 사조였다는 말이 있음. 또 다른 말로 전 세계 화인이 있는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엔 무협소설이 있다는 말도 있음
  - 소위 신무협(新武俠) 작가 그룹으로 불리는 김용(金庸), 고룡(古龍), 와룡생(臥龍生), 양우생(梁羽生) 등이 195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발현한 무협소설은 단순 오락거리를 벗어나 디아스포라로서 전 세계 화인들의 중화성(中華性)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 냉전기의 상징적 문화콘텐츠였음
- ✔ 이중 김용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임
  - 특히 <사조(射鵰) 3부작>으로 대표되는 김용의 무협 세계관은 당시 화인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현지인들을 매료시켰고, 냉전기에는 금서(禁書)로 지정된 중국에서도 모택동, 등소평 등 공산당 지도층을 사로잡았음. 단순 소설뿐 아니라 만화, 영화, TV 시리즈 등 2차 저작물로도 꾸준히 생산되면서 확고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은 동북아, 동남아 전체에 이름<sup>1)</sup>
- ✔ 본 연구는 그 가운데 냉전기 태국에서의 무협소설의 전파와 문화콘텐츠로서 그 영향력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 김용을 비롯한 중국 무협소설의 태국 전파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적지 않음(範 軍 2020; 王苗芳 2009; 李學仙 2011; 鄧笑然 2022; 鄒坤怡 2024; 裴思蘭 2004; 何明星 2011; 徐佩玲 2014; Han 2021; 範 軍 2022; 趙安珠 2013)
  - 그만큼 그 중요성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태국어로의 번역과정, 태국 문학계에 미친 영향, 태국 대중문화에의 지위 등 태국 로컬 문화에 끼친 영향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음(範 軍 2020; 王苗芳 2009; 李學仙 2011; 鄧笑然 2022; 範 軍 2020; 鄧笑然 2022)

1) 김용 무협소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있음. 특히 한국에서도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鄧笑然. 2022; 李雲飛. 2021; 花尻 奈緒子. 2006; 하유기. 2024; 김명석. 2009; 조홍선. 2012; 유경철. 2004; 우강식. 2021; 우강식. 2005; 우강식. 2020)

- 대부분 중국에서 수학한 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 및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데, 이 시기 태국 사회에 열풍이 분 김용 무협 작품의 확산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화인들에 대해서는 개략적 설명 및 마중물 정도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또한 냉전기 및 군부 독재 정권 시기 태국인들의 정체성 및 심상에 끼친 무협소설 연계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주목하면서도 이 시기 태국 내 중요한 디아스포라 그룹인 화인들의 이주민 정체성 및 심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음(鄒坤怡 2024)
- 더 나아가 김용을 비롯한 무협소설이 전파한 문화콘텐츠가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화인들의 역할, 반대로 무협소설 전파가 화인들의 현지화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역시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
- ❖ 이에 본 연구는 태국 사회에 끼친 김용 무협소설의 영향뿐 아니라 태국 화인들이 김용의 무협소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지, 이 두 주체(태국 사회 및 화인 사회)가 동시대에 무협소설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태화(泰華)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할 것임
- ❖ 태국 문학사의 관점에서 중국 무협소설의 전파는 문학 번역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태국 내 화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음
  - 19세기, 20세기 초중반까지 이어진 중국 문학 작품의 태국 전파는 화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었음.<sup>2)</sup>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중후반에 절정에 달하는 김용-고룡 중심 무협소설의 열풍 시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기도 함
  - 다만 이 시기 무협소설의 화인 전파는 그 시작이 홍콩과 대만이라는 점과 대부분 중국 대륙이 아닌, 해외 화인 공동체 사이에 퍼지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냉전기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함. 그리고 이는 그대로 태국 내부 외래 문학 번역사라는 카테고리과 교집합이기도 함
  - 또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보면, 텍스트 중심의 무협소설이 영상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전파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생산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함. 그리고 이 혁신은 태국이라는 국가 공간에서 타이인과 화인이 동시에 향유하는 경험이기도 했음
  - 또한 화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의 문화적, 종족적 연계가 희미해지고, 점차 3~4 세대에 걸쳐 현지화되는 과정이 보이면서 그 속에서 중국 무협소설 역시 현지화하는 현상도 보임
- ❖ 결론적으로, '5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친 중국 무협소설 열풍은 근대화 이후 태국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화인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형성, 텍스트 중심 문학이 영상 매체 중심 콘텐츠 재생산 및 광범위한 대중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 화인 후속 세대의 현지화 과정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주제이기도 함. 냉전기 중국 신무협소설의 전파 및 열풍은 태국사, 태국 문학사, 동남아 화인사의 관점에서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는 주제임

2) 후술하겠지만, 태국인들에게 당시 중국 문학의 전파는 일부 왕실 및 관료, 귀족 계층의 전유물이었음

II

김용 무협소설의 남양(南洋) 전파와 화인(華人) 세계

- ✔ 김용(金庸, Louis Cha)의 본명은 사랑용(查良鏞)으로, 1924년 절강성(浙江省) 해녕(海寧)에서 태어났음. 그는 절강 지역 최고의 명문 사족인 해녕 사씨의 22 대손으로 일찍부터 사족(士族)으로서 유가(儒家) 학문의 교육을 받았음

  - 사씨는 해녕 지역 5개 대성(查, 祝, 許, 董, 周) 가운데 최고의 명문으로 유명했고, 명·청 시대 전 시기에 걸쳐 22명의 진사(進士) 과거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이름을 알렸음. 청대 강희(康熙) 연간에는 일가에서 10명의 진사, 5명의 한림(翰林)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했음. 사씨 가문의 종사(宗祠)에는 강희제가 내린 친필 대련(對聯)이 한 폭(“당송 이래 거족, 강남의 손꼽히는 가문(唐宋以來巨族, 江南有數人家)”)이 여전히 걸려있음(張建智 2016)
  -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김용은 일찍부터 유가 학문에 기반한 문예를 배웠고, 도교와 불교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배경은 그가 중화(中華)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무협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한 기반이 되었음
- ✔ 1937년 일본이 강남 지역을 본격적으로 폭격하면서 시작된 중일전쟁으로 일가족 모두 피난길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모친을 여임. 당시 다른 성(省)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던 김용은 2차 대전 이후 상해(上海)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유력 신문 <대공보(大公報)>에 다니고 있었음. 1948년 대학 졸업과 함께 홍콩 <대공보>의 부록 담당자로 파견을 가면서 홍콩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음

  - 그 직후 1949년 그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비판과 처형을 당하면서 아울러 재산마저 몰수당하는 비극을 겪음(張建智 2016).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1970년대까지 홍콩에 머물게 되고, 그의 저서 역시 중국 대륙에서는 꾸준히 금서로 지정되는 계기가 되었음
  - 그의 작품이 홍콩 화인으로서의 경험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울러 냉전기 해외 화인 사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기도 함
- ✔ 이후 편집자이자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소속 신문의 판매를 위해 본격적으로 무협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필명을 ‘사랑용’의 마지막 ‘용(鏞)’자를 파자한 ‘김용(金庸)’으로 하였음

  - 1952년에는 <대공보>를 떠나 <신만보(新晚報)> 부록 편집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955년부터 첫 단독 무협소설인 <서검은구록>을 <신만보>에 연재하기 시작함. 1959년에는 그 스스로 <명보(明報)>라는 신문을 창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작품이 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함(香港中央圖書館 香港文學資料室 2013)
  - 그의 작품 연재 활동은 1972년 <녹정기> 연재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작품명	연재 및 출간 연도	매체	역사적 배경	비고
서검은구록 (書劍恩仇錄)	1955-1956	신만보 (新晚報)	청대 건륭제	
벽혈검 (碧血劍)	1956-1956	홍콩상보 (香港商報)	명대	
사조영웅전 (射鵰英雄傳)	1957-1959	홍콩상보 (香港商報)	남송	



설산비호 (雪山飛虎)	1959-1959	신만보 (新晚報)	청대 건륭제	
신조협려 (神鵬俠侶)	1959-1961	명보 (明報)	남송/원초	
원양도 (鴛鴦刀)	1961	명보 (明報)	청대	단편
백마소서풍 (白馬嘯西風)	1961	명보 (明報)	명대	단편
비호외전 (飛虎外傳)	1960-1962	무협과 역사 (武俠與歷史)	청대 건륭제	
의천도룡기	1961-1963	명보 (明報)	원말/명초	
천룡팔부 (天龍八部)	1963-1966	명보(明報)/ 남양상보(南洋商報)	북송	
연성결 (連城訣)	1964-1965	동남아주간 (東南亞週刊)	청대	
협객행 (俠客行)	1966-1967	명보 (明報)	명말/청초	
소오강호 (笑傲江湖)	1967-1969	명보 (明報)	명대	
녹정기 (鹿鼎記)	1969-1972	명보 (明報)	청대 강희제	
월녀검 (月女劍)	1970	명보만보 (明報晚報)	춘추시대	단편

표 1 | 역대 김용 무협소설 연재 목록

❖ **홍콩을 벗어나 중화권으로의 전파를 주도한 것은 싱가포르였음**

- 이미 1958년에 홍콩에서 제작된 <사조영웅전> 영화 두 편이 싱가포르에서 상영이 예고될 정도였으니 그 전달 속도는 당시의 콘텐츠 전파 속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실시간에 가까웠음<sup>3)</sup>
-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화문(華文) 문학의 중심으로 김용 소설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당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대여점이 곳곳에 설립되어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는 서적과 신문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용, 고룡, 양우생, 와룡생 등과 같은 저명한 무협소설 작가들의 연재 및 단행본 작품들이었음<sup>4)</sup>
- 상술한 것처럼 김용은 애초에 언론계 종사자와 신무협의 창시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으므로 홍콩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언론사들과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 1967년에는 싱가포르의 기업가와 공동으로 <신명일보(新明日報)>를 설립하였고, <신명일보>는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게 됨

❖ **1963년 9월 전체에 걸쳐 <남양상보(南洋商報)>에는 대규모 전면 광고로 김용의 <천룡팔부>가 연재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특히 9월 12일 연재 시작일에는 1면 전면 광고를 통해 부록에 소설의 주요 내용과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sup>5)</sup>**

3) “射鵬英雄傳”二集東方大光今晚半夜場映”. 南洋商報. 18 October 1959. 8

4) 이후 관련 학자들은 이들을 2차 대전 이전 대륙 중심 무협소설 경향과 구분하여 홍콩, 대만, 마카오 중심 ‘신무협 사조’로 분류하고 있음

- 이는 9월 3일 홍콩의 <명보>에서 연재를 시작한 해당 작품과 거의 동시에 연재되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연재는 이미 이전에 성공적으로 연재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1960년 3월 19일 창간된 싱가포르의 <민보(民報)>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여러 무협 작가의 작품을 실어 인기를 끌었고, 창립자인 여국화(黎國華)가 운영하던 출판사는 이를 묶어 단행본으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었음. <신조협려>가 연재될 당시, 그가 창립한 판매사인 ‘원동문화(遠東文化)’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소설을 단행본으로 판매하여 1960년 12월에 이미 총판매 부수 48만 부를 달성한 바 있음(李雲飛 2021)
- ④ 김용의 무협소설은 단순히 연재나 단행본 출판과 같은 텍스트뿐 아니라 2차 콘텐츠로도 생산되어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화인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음. 홍콩과 대만에서 연재가 쌓이면 바로 영화로 제작되고 있었고, TV의 보급 이후에는 시리즈로도 제작되어 전파되었음<sup>5)</sup>
  - <사조영웅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재되는 김용의 소설들은 1980년대, ‘90년대까지 연재에 재연재를 이어갔고,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속적으로 방영되면서 독자와 청취자, 시청자, 관객 등 콘텐츠 수용자의 수는 화인 사회 전체에 달할 정도였음. 화인이 있는 곳에 김용의 소설이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화인 사회의 규모가 크고, 화인 신문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도네시아, 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음(Leo Suryadianta 2007)
- ④ 김용의 소설과 2차 저작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무협 세계관은 2차 대전 직후 냉전기 화인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립으로 흩어질 수 있었던 초국적 화인 사회가 하나의 ‘상상된’ 권역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주었음
  - 이는 대량 인쇄된 출판물의 보급이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소속감(sense of belonging)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폐쇄적 공동체 인식인 내셔널리즘의 발현에 필수적이었다고 역설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과도 맞물리는 지점임(베네딕트 앤더슨 2018)
  - 아울러 관련 화인 연구에서 영토성을 상실하고, 보호해 줄 국가의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없던 디아스포라 그룹인 화인들이 자체적인 공동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냉전기 및 1990년대, 21세기에 걸쳐 관찰된다고 지적하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함(김종호 2017)
  - 이는 중국 대륙의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공산당 정권에 의해 부친을 잃으면서 영국 식민지 홍콩에서 강제적으로 화인 언론가 및 작가가 된 김용의 개인사와도 공유되는 지점임. 물론 이야기꾼으로서 김용의 창작 재능이 화인 독자들에게 극한의 오락성을 제공해 준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겠지만, 그 외에 그의 무협 세계관이 화인들에게 다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점도 있었을 것임

5) “本報今日在商餘版推出長篇武俠小說 金庸名著 天龍八部”. 南洋商報. 12 September 1963. 1

6) 이러한 과정은 후술할 태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음

-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과 감정은 사회적 의의보다 더 중요한 점을 갖추고 있다. 광정이 말하는 ”애국위민 협시대자(愛國爲民 俠之大者)“란 구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커다란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장래에는 국가란 개념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애국이니 항적이니 하는 관념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지만 부모, 자녀, 형제간의 정이나 순수한 우정, 사랑, 정의감, 착함, 용감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사회를 위해 헌신 등의 감정과 덕성 등은 금후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찬미되어질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 이론이나 경제 제도, 종교 신앙 등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  
- 김용, <신조협려> 후기 중(우강식 2005)

✔ 흔히 김용의 가장 유명한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사조영웅전>의 주인공인 ‘광정’은 전형적인 대협(大俠)으로 애국과 충성의 상징으로 묘사됨. 그 때문에 단순하게 김용을 ‘중화’를 배타적으로 신봉하고, 중국을 이상화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인물로 평가하기 쉬움

- 다만, 이후에 연재되는 <신조협려>의 주인공이나 다른 여러 작품들의 주인공들, 시대 배경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는 오해에 가깝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음. 인용한 김용의 이러한 후기는 그의 여러 작품들이 특히 해외 화인 사회에 끼친 커다란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줌. 그 자신이 공산화된 중국 대륙을 떠나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홍콩에 정착한 문학가이자 언론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그대로 그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음. 그의 작품 속 ‘대협’들은 대부분 대의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지만, 인물뿐 아니라 충성하는 국가 역시 그 끝이 그리 좋지는 않음

✔ 오히려 그의 작품에 보이는 인물들 간의 관계, 서로 돕는 모습 등 그가 <신조협려> 후기에서 언급한 개인적 차원의 가치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신이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디아스포라로서 유리된 삶을 살고 있는 화인들에게 강하게 어필된 것처럼 보임

- 공산화된 중국에서는 모든 전통문화가 부정된 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 조국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화인들에게 김용의 문학 속 무협 세계는 사라진 줄 알았던 중화 문화와의 보이지 않는 선, 종족적 정체성으로서 중화성의 회복처럼 느껴졌을 수 있음
- 게다가 무협 세계관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강호(江湖)’, ‘무림(武林)’이라는 세계는 국가의 통치가 닿지 않는 치외법권적 영역이자 일반 사회와 유리된 권역으로 그려지는 무술인들의 무정부주의적 공간이라는 점도 냉전기 국가와 사회로부터 유리된 채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해야 했던 화인들의 처지와 비슷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음

- “내가 초기에 지은 소설들은 한인 황조의 정통관념이 강했다. 후기에 이르러 중화민족의 각 민족을 차별 없이 대하고자 하는 관념이 기초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두 나의 역사관이 비교적 조금 진보한 까닭이라 하겠다. 이는 <천룡팔부>, <백마소서풍>, <녹정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소보의 부친은 한족, 만주족, 몽고족, 회족, 장족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소설 <서검은구름>에서 주인공 진가락이 후에 회교로 귀의한 것이라든지, 매 한 종족과 종교, 직업에는 모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쁜 황제가



있으면 좋은 황제가 있고, 나쁜 관리가 있으면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도 있는 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한족, 만주족, 거란족, 서장족..... 등에는 모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 김용, <김용 작품집 · 삼련판서(三聯版序)> 중(우강식 2005)

- “내가 중국의 황제가 되어 비록 요순우탕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온 힘을 다해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였다. 명나라의 황제 중 누구 하나 나보다 낫더란 말이나? 이제 삼번은 이미 평정되었고, 대만도 취하였고, 나찰국도 다시는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네. 이로써 천하는 태평해졌고, 백성들은 즐거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네. 그러나 천지회의 반적들은 반드시 주씨의 명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백성들이 주씨 황제 치하에서 보냈던 지난날들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김용 <녹정기> 중 강희제의 대사(우강식 2005)

- ✔ 1972년 마지막 작품인 <녹정기> 속 강희제의 대사나 1980년대 김용 작품집에 드러난 인식을 보면 그의 작품 세계 속 한족 정권은 그리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음
  - 오히려 중화의 전통이란 여러 이민족들과의 소통과 교류, 융합의 결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진족이 세운 청의 이민족 황제인 강희제의 치세가 이전 한족 왕조보다 더욱 평온하였다는 평가마저 가능해짐. 이러한 김용 무협소설 속 세계관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종족들과 공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타종족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중국계 이주민들, 즉 화인들에게 소구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지점들은 화인이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나 철저히 현지사회와 유리된 구역을 형성한 말레이시아보다 태국의 케이스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음
  - 심지어 태국은 화인뿐 아니라 태국 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케이스에 해당함. 그리고 이 두 주체의 동시대적 수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태국식 무협 콘텐츠의 발전을 견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III

## 김용 무협 세계관의 태국 전파와 태국식 무협 문화콘텐츠의 발전

### 1

## 중국 무협소설 전파의 과거와 현재



- ✔ 중국 문학의 태국 전파는 이미 태국 아유타야 왕조 시기(Ayutthaya 1351-1767)부터 이루어진 오래된 현상이었음
  - 다만, 당시 태국은 인도 문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남아 있지는 않았고, 일부 중국계 거주민들 사이에 구술 및 민속극으로 향유되는 형식이었음. 영국이나 프랑스인들이 이 지역을 여행하고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미 1600년대 태국 전역에 중국계 이주민들이 펼치는 공연을 볼 수 있었다고 함(範軍 2020). 방콕을 수도로 한 차크리 왕조(Chakri 1782-현재) 이전

중국의 문학이 태국 지역에 전파되기는 했지만, 지역 내 중국계 거주민들의 독특한 문화였지, 태국인들의 로컬문화에 흡수되거나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국 문학에 대한 태국어로의 번역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것이 중국 문학의 전파 기록은 있어도 태국어로 된 중국 문학에 대한 기록은 없는 이유일 것임

✔ 이후 방콕 왕조 초기가 되면 중국 문학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방콕 왕조 성립 이후 본격화된 중국 문학의 태국 전파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음. 범군(範軍)의 경우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함(範軍 2020)

- 1) 방콕 왕조 1 대 왕부터 2 차 대전까지(1805-1945) 2) 2 차 대전 종전 이후 1957 년까지 3) 1958 년부터 태국에 무협소설이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 4) 1973 년에서 1976 년까지 중국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던 시기('76 년 '10 월 6 일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저서는 금서로 지정됨) 5) 다양화 시기로 1976 년부터 현재까지임

· 이 중 3), 4), 5) 시기에 걸쳐 중국 무협소설의 태국어 번역이 붐을 이루었고, 가장 인기가 있는 장르였음. 특히 5) 시기 이후 중국과 태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중국 무협소설의 태국어 번역이 더욱 활성화되었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자 왕묘방(王苗芳)이 태국에서 중국 문학의 번역과 보급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1) 중국 고전 대중 소설의 시대 2) 중국 현대 문학 작품의 시대 3) 중국 무협소설의 시대 임(王苗芳 2009)

- 특히 세 번째 단계를 중국 무협소설로 명명한 것은 그 중요성이 문학계를 넘어 영화, 텔레비전, 미디어, 광고 등 2 차 콘텐츠 생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중국 현대 문학의 태국에서의 인기는 주로 무협소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김용, 고룡과 같은 신무협소설 작가들이 노신(魯迅 루쉰), 파금(巴金)과 같은 현대문학자들보다 더욱 영향력 있었다고 보고 있음

✔ 이학선(李學善) 역시 왕묘방과 비슷하게 중국 문학의 태국 전파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 있음(李學仙 2011)

- 첫 번째는 고전문학인 <삼국지(三國志)>가 전파된 시기로 톤부리 왕조(Thonburi 1767-1782) 시기에 구전으로 삼국지가 전파되었다고 함. 그러다가 1782 년 방콕 왕조가 설립되면서 라마(Rama) 1 세가 주도하여 중국 문학을 통한 문화 부흥이 시작되었음
- 두 번째 시기는 노신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륙의 신문학이 전파된 1930 년대임. 이 시기 태국 번역가가 노신의 <아 Q 정전>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 신문학을 태국에 소개하였고, 노신의 팬층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태국어로 번역되었음. 다만, 이와 같은 중국 대륙의 문학 작품은 1950 년대 이후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사회주의 문학으로 지정되어 금서 취급을 받음<sup>7)</sup>
-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시기, 2 차 세계 대전 이후 노신을 비롯한 중국 신문학을 대체하여 전파된 중국 문학이 홍콩과 대만을 기반으로 한 김용과 고룡 등 신무협소설가들의 작품들이었음<sup>8)</sup>

7) 이후 1975년 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중국 대륙의 문학이 다시 태국 문학계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음

8) 하명성(何明星)은 1802년에서 1932년까지를 '삼국지 시대'라 불리는 첫 번째 단계, 1932년에서 1975년까지를 '노신, 김용 시대'로 부르며 중국 현대 문학과 신무협이 전파된 단계, 1975년 태국-중국 공식 수교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중국 문학 전파의 다양화, 다각화 단계로 명명하기도 함(何明星. 2011)

- ❖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중국 문학의 태국 사회 전파 및 번역의 역사 가운데 역사 및 무협소설의 전파 과정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sup>9)</sup>

  - 대부분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이 1802년 라마 1세의 명령으로 <삼국지(三國志)>가 <삼국(三國)>이라는 제목으로 1805년에, <서한연의(西漢演義)>가 <서한(西漢)>이라는 제목으로 1806년에 번역된 지점임. 이 두 번역본이 이후 방콕 왕조의 역대 왕들과 관료, 장군들에게 읽히기 시작하였음
  - 라마 2세 재위기간 (1809-1824)에 <수호지(水滸志)>, <서유기(西遊記)>, <홍루몽(紅樓夢)>, <금병매(金瓶梅)>, <요재지이(聊齋志異)>, <동주열국지(東周列國志)>, <동한연의(東漢演義)>, <봉신연의(封神演義)> 등의 중국 소설이 번역되었음
  - 그 다음 라마 3세 시기(1834-1851) 서양식 인쇄기의 도입은 중국 문학 번역 및 출판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음(何明星, 2011). 1865년에는 방콕에서 중국 문학이 인쇄 및 출판되어 궁중 관료 및 귀족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 특히 고전 소설이자 무협소설의 원조로 <삼국지>의 지위가 압도적이었음
  - 라마 4세 몽곳 통치 시기(1851-1868)에 <수호전>이 태국어로 <송강(宋江)>이라는 제목으로 1867년에 번역되었고, 1869년에 출간되었음. 그 외에도 라마 4세 시기에는 <설악전전(說嶽全傳)>, <오호평서전전(五虎平西全傳)>, <수당연의(隋唐演義)>, <남송중흥연의(南宋重興演義)>, <오대사평화(五代史平話)> 등의 소설이, 라마 5세 시기(1868-1910)에는 <한신(韓信)>, <설인귀동정(薛仁貴東征)>, <대홍포(大紅袍)>, <포공안(包公案)> 등의 작품이 번역되었음(何明星 2011)
- ❖ 라마 6세(1910-1925), 7세(1925-1935) 시기 인쇄술의 발전과 출판사의 출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켰고, 특별히 삼국지의 한 에피소드인 <적벽대전(赤壁大戰)>은 1935년에서 1945년 사이에 25만 부나 인쇄되었음(何明星 2011)

  - 인쇄 기술의 발전은 신문이나 잡지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21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무협소설 <칠협오의(七俠五義)>가 번역되어 <섬라보(暹羅報)>에 연재되기도 했음
  - 1930년대에는 <국주일보(國柱日報)>에 중국 무협소설이 번역 및 연재되어 태국 독자들의 환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32년에 번역된 소설로 <금병매(金瓶梅)>, <양홍옥(梁紅玉)>, <홍련사(紅蓮寺)> 등이 있었는데, 뒤의 두 편이 무협소설이었음(範軍 2022)
  - 그 이후 1940년대까지 중국 무협소설이 다양하게 번역 출간되었음. 중국 역사 및 무협소설의 연재는 신문 부수 발행의 확산을 보증하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함
- ❖ 이후 2차 대전과 전후 냉전의 시작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중국 소설 전파는 1957년부터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함. 특히 이 당시의 열풍을 선도한 것은 이전의 역사 소설보다는 언론인이자 무협소설가 김용의 꾸준한 작품활동이었음

  - 화인 사회를 통해 전파된 김용의 소설은 처음 1959년 <사조영웅전>이 태국어로 번역

9) 이어지는 내용은 상술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내용 가운데 관련 내용만 추출하여 정리한 것임(範軍, 2020; 王苗芳, 2009; 李學仙, 2011; 何明星, 2011)

소개되었음(鄒坤怡 2024). 당시 태국어판의 제목은 <옥룡(玉龍)>이었음. 참롱 피사나카 (Chamlong Phisanaka)가 번역하여 1958년에 초판을 발행한 해당 작품은 큰 인기를 끌어 서점이 독자들로 붐빌 정도였고, 재판의 빠른 판매 및 태국 사회에서의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켰음. 이후 출간된 <신조협려>, <의천도룡기>가 <옥룡 2>, <옥룡 3>이라는 시리즈 형식으로 역시나 큰 인기를 얻으면서 '김용 열풍'을 불러일으켰음. 즉, <사조 3부작>이 태국에서는 <옥룡 3부작>인 것임(範 軍 2022)

✔ 김용 열풍에 힘입어 다양한 태국의 번역가들과 출판사들이 홍콩과 대만에서 나오기 시작한 무협소설들을 차레차레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에서는 화인 사회뿐 아니라 태국 사회에서도 무협소설이 열풍을 일으켰음

- 김용 외에 양우생의 <평종협영(萍蹤俠影)>, 고룡의 <호접유성검(蝴蝶流星劍)>, <절대쌍교(絕代雙驕)>, <협도초류향(俠盜楚留香)>, <소십일랑(蕭十一郎)>, <다정검객무정검(多情劍客無情劍)>, <환락영웅(歡樂英雄)>, <칠종무기(七種武器)>, <육소봉(陸小鳳)>, <소리비도(小李飛刀)> 등이 번역 출간되었음(範 軍. 2020)
- 무협소설은 태국 신문사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잡았고, <사조영웅전>의 판권을 두고 신문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정도였음(何明星 2011). <태국일보(泰國日報)>는 고룡의 무협소설을 연재하며 일일 발행 부수가 40만 부에서 60만 부로 급증하기도 했음(何明星 2011)
-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방콕의 유명한 두 서점(한사 Hansa와 첨첨산 Chum Chum San)에서는 매일 약 100권의 무협소설이 대여되었으며,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태국에서 번역 출판된 무협소설은 최소 343권에 이룸. 1973년이 가장 절정이었는데, 총 35권의 무협소설이 출판되었음(鄒坤怡 2024)

✔ 무협소설이 가진 다양한 인간군상의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 생동감 있는 묘사,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공 및 신적인 무기,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 여주인공과의 로맨스 등등은 태국인들에게 1980년대까지 극한의 오락성을 제공하는 콘텐츠였음

- 비록 김용을 필두로 한 신무협 분파의 소설들은 1980년대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만, 콘텐츠로서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태국의 <민의일보(民意日報)>에서는 “무협소설은 서점에서 없어서는 안될 읽을거리가 되었으며 무협 테마가 문학과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 넘쳐나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음(範 軍 2020)
- 아울러 이 시기 TV 및 영화관이 태국 전역에 보급되면서 다양한 영화 및 드라마의 소재로 무협이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당시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흥기와도 연계되어 있음. 수많은 홍콩 무협 관련 영화들이 태국어로 번역되어 태국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음. 방콕의 일부 식자층만 즐기던 텍스트 중심 무협 콘텐츠가 태국 전역 76개 주의 대중들에게 광범하게 인기를 가진 콘텐츠로 부상한 것임. 이때 주로 방영되던 것이 바로 김용과 같은 신무협소설가들의 작품을 영상화한 것들이었음

✔ [부록-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협소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홍콩과 대만에서 제작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태국 사회에 소개되어 왔음

- 1958년 홍콩에서 최초로 제작된 무협 영화 <사조영웅전> 2부작을 광둥어로 제작하여 방콕에서

상영한 것이 시작이었음. 이후 김용의 무협소설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방콕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홍콩 및 대만에서 제작된 것이 전파되기도 하면서 무협소설의 영상화가 대중적 인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20세기 후반,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무엇보다 21세기 들어서는 태국 자체적으로 제작한 관련 드라마들이 제작되어 대중적 인기를 끌었음

- ❖ 1990년대 이후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미권 문화콘텐츠의 진출로 하락세를 겪던 중국 무협소설의 인기는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세대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확대하면서 전기를 맞았음

  - 많은 홍콩 및 대만의 작가들이 쓴 무협소설들은 판타지적, 선형적 세계관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수요에 대응하였고, 이는 현재 태국 무협소설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음(Yap 2023). 여기에는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의 보급이라는 기술적 혁신도 중요한 배경임. 단순히 옛날 것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 신선한 콘텐츠로 재발견된 것임
  - 아울러 이와 같은 무협 콘텐츠의 긴 역사는 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상력과 영감을 주었는데, 단순히 홍콩, 대만 등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단순 수입 및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그리고 이는 태국 화인들만의 문화를 넘어 태국인들의 보편적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함<sup>10)</sup>
- ❖ 중국 무협소설을 꾸준히 번역한 역사는 그대로 현재 태국인 무협소설 작가들의 활동을 설명해 줌.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으로 무협소설을 향유한 젊은 세대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로 20대, 30대가 되는 21세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태국의 자체적 무협소설을 생산해 내기 시작했음

  - 지금까지도 수천 명에 달하는 태국 작가들이 ‘dek-d 웹사이트 (www.dek-d.com)’, ‘pantip 웹사이트(www.pantip.com)’, ‘jj-book 웹사이트(www.jj-book.com)’ 등에서 무협소설을 생산해 내고 있음(範 軍. 2020). 최근에는 무협의 경계를 넘어 선협(仙俠) 세계관에 기반을 둔 소설 및 2차 콘텐츠(영화, 드라마 등)가 주류로 자리 잡는 현상이 보임(Yap 2023)

2

무협 세계관이 태국 대중의 일상에 끼친 영향



- ❖ 무협이 태국의 대중문화 및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큼.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태국인들의 일상 용어에서도 「武林/江湖」(ยุทธจักร), 「內功」(กำลังภายใน), 「武功」(วิทยายุทธ), 「高手」(ฝีมือ), 「老頑童」(เฒ่าทารก) 등의 주로 무협소설에서 쓰이는 한자어가 태국어로 쓰이기도 하고, 「走火入魔」(ขาดใจเข้าแทรก), 「不知天高地厚」(ไม่รู้จักที่สูงแผ่นดินต่ำ), 「天外有天, 人外有人」(เหนือฟ้ามีฟ้าเหนือคนมีคน),

10) 물론 이러한 현상은 냉전기 중국 무협소설이 열풍을 일으키던 시기에도 일부 번역가 및 창작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한적이었고, 홍콩, 대만산 무협의 인기가 압도적이었음. 21세기 새로운 세대가 창작해 내고 있는 무협 콘텐츠의 특징은 수입된 것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작품들 역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임



「不見棺材不落淚」(ไม่เห็นโลงศพไม่หลั่งน้ำตา) 등의 한자 성어(成語)가 무협소설을 통해 익숙해지면서 태국어화하였음(範軍 2020; 王苗芳 2009)

- 무협소설의 열풍과 영화 및 드라마를 통한 대중화는 현재 태국어에 무협소설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나 고사성어가 그대로 차용되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음. 주요 용어들을 나열하면 [부록-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王苗芳 2009)
- 심지어는 1970-1990년대 방콕 및 태국 내 여러 지역의 많은 상점과 음식 메뉴들이 이 김용의 무협소설에 영향을 받아 지어지기도 할 정도였음. 「곽정 국수점(郭靖糲條店)」, 「내공죽(內功粥)」, 「개방닭(丐幫雞)」, 「칭기스칸 바베큐(成吉思汗烤豬)」, 「옥룡 덤섬(玉龍點心)」, 「사왕야 혼툰면(四王爺餛飩面)」, 「곽정 족발 식당(郭靖豬腳飯店)」, 「옥룡 식당(玉龍飯館)」, 「곽정 면식당(郭靖麵館)」, 「주백통 닭튀김(周伯通雞油飯)」 등등이 있음(範軍 2020)

❖ 태국 사회로의 무협소설 진출 및 전파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술한 용어 및 성어 외에도 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았음

- 라마 1세 시기 <삼국지>의 번역은 그 특유의 은유와 언어적 풍부함으로 태국의 상류층에게 인기를 끌었고, 많은 문인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소위 '삼국체'라는 사조를 형성할 정도였음. 1950년대 후반 김용의 무협소설을 처음으로 번역한 이후 무협소설 번역의 열풍이 불면서 많은 태국인 및 화인 번역가들이 소위 이 '삼국체'를 활용하여 중국어 무협소설을 번역하였고, 이는 그대로 태국 문학의 '무협체'를 형성하였음(範軍 2022)
- 이렇게 번역된 무협소설을 읽으며 자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도하는 21세기 태국 무협소설 및 콘텐츠의 주요 텍스트 역시 이러한 영향 아래 창조되고 있음. 이는 태국어로 쓰이지만 [부록-2]의 성어 및 무협 용어들을 차용한 글쓰기가 적용된 태국의 무협소설 수천 편이 유통되는 과정으로 이어짐

❖ 1960년대에서 '80년대 절정에 이른 홍콩 및 대만 무협소설의 전파는 그 시대적 상황이 태국의 군부독재 시기라는 암흑기와 맞물려 있음

-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면서 시암 왕국에서 근대 국가 태국이 된 이래 태국은 줄곧 군부의 통제를 받아왔음. 21세기 탁신의 등장 이전까지 태국의 정계는 민간 총리가 제대로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특히 2차 대전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피분 송크람(Phibun Songkhram)이나 1960년대 미국의 지지를 받은 사릿 타나랏(Sarit Thanarat) 시기 대중들에 대한 통제는 절정에 달했음(鄒坤怡 2024). 미국과의 강력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이들 군부는 반군부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 출판물 통제 정책을 펼쳤고, 각종 금서가 난무했음. 또한 반공을 기치로 내건 군부 정권답게 사회주의적 관점이나 중국 대륙에서 출간된 서적의 수입은 엄격히 금지되었음. 그 가운데 홍콩과 대만의 무협소설은 정치성이 없는 오락 소설이면서 친서구적 지역에서 수입된 창작물로 분류되어 적극적으로 유행될 수 있었음

❖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견디지 못한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무협소설 풍의 글을 통해 군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엘리트를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음

- 무협의 세계가 군부 정권 시절 쿠데타와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 평론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

것임. 1970년대 군부가 신문 잡지에서 정치 평론을 금지했을 때, 솜차이 크루아수안솜밭(Somchai Kruasuansombat)은 김용의 소설인 〈사조영웅전〉 속 인물, ‘주백통’을 필명으로 하여 〈국태일보(國泰日報)〉에 〈시암 무림〉을 연재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무협소설계에 빗대어 정치 평론을 시도한 바 있음(範軍 2020; 鄒坤怡 2024). 그는 정치계를 무림으로, 정치인들은 강호의 고수들로 비유하면서 현재의 정치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군부 독재의 제한을 피해갔는데, 때로는 무협적 장치를 활용하여, 때로는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매개로 하여 군부 및 상류 엘리트 계층의 모순과 부패를 우회적으로 풍자하면서 비판하였음

❖ **김용 무협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 소설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맥락 아래 가상의 인물과 스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드러내는 역사성임**

- 김용의 소설들은 특정한 시대와 인물들이 김용이 창조해 낸 인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함.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문학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 상호작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김용의 문학적 특징은 태국의 무협소설에도 영향을 끼쳐 상당수 태국 무협소설이 특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쿵창쿵판(坤昌坤平)〉, 〈프라차나스티 (普查那斯替)〉, 〈방라짱(邦啦張)〉, 〈라차티라(啦查替拉)〉 등의 작품들이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쓰였음. 미얀마와의 역사적 충돌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영웅적 활약이나 비극적 서사가 김용의 〈사조영웅전〉이나 〈천룡팔부〉의 주인공들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 희생되는 서사구조와 닮아 있다고 평가받음(李學仙 2011)

3

**김용 무협소설 전파의 원인과 의미**



❖ **냉전기 김용을 비롯한 신무협소설들의 태국에서의 인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음(範軍 2020). 이를 몇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보면 우선, 무협소설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가진 힘이 있을 것임**

-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 생동감 있는 묘사,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공 및 신적인 무기,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 여주인공과의 로맨스 등은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녔음
- 예를 들어, 〈사조영웅전〉의 등장인물은 개성이 선명함. ‘곽정’은 성실하고 솔직하며, ‘황용’은 영리하고 교활한데, 대중 독자들은 이러한 평면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에게 쉽게 몰입함. 이것은 중국 전통 소설과 연극의 특징이지만, 인물의 내면세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이것이 무협소설이 순수 문학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르적 특성을 지닌 창작물로 취급되는 이유일 것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즉, 인물 성격이 단순하고 이야기 전개가 흥미진진하기에 〈사조영웅전〉은 널리 환영받았고, 여러 언어로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방영된 것이기도 함

❖ **두 번째는 상술한 것처럼 당시의 시대적 상황임**

- 태국에서 무협소설이 가장 큰 인기를 끈 시기는 1960-1980년대로 피분 송크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래 군부에 의한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시기였음. 이 시기 태국의 대중문화 및 문학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전 시기에 걸쳐 언론의 자유가 통제 당하였고, 신문과

잡지가 다수 폐간되었으며, 도서의 출간, 진보적 작가의 구금이 이어지던 시기였음.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던 군부 독재 아래 다양한 매력을 가지며 대중들에게 보급된 문학 작품은 홍콩과 대만의 무협소설이었음. 아울러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중산층, 지식 계층, 식자층의 독서 열기에 부합하는 대중문화이기도 했음<sup>11)</sup>

- 또한, 무협소설이 가진 오락성은 길고 통제적인 군부 독재에 지친 대중들에게는 상상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피처로 작용했고, 아울러 주인공의 영웅적 행적은 엄혹한 시기 방콕의 대중들에게 탈출구가 되어 주었을 것임. 무엇보다 협과 의를 강조하며 불의한 세력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무협소설의 전형적인 스토리가 군부와 독재라는,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사는 대중들에게 주는 쾌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문화적 공통성임

- 김용을 비롯한 신무협소설의 핵심 주제는 의와 협과 같은 지극히 유가적인 세계관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무술, 문파, 사고 체계 등은 도교와 불교적 세계관이 섞인 측면이 큼. 즉, 중국 문화의 세 축인 유불도가 혼합된 문학 콘텐츠가 중국 무협소설인데, 태국의 불교적 세계관과 중국 무협소설의 큰 축인 불교적 세계관이 가진 동질성이 타국의 문화인 무협소설이 태국의 대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을 것임. 특히 김용은 그 스스로도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고, 초기 작품에 비해 후기 작품에는 불교적 사상과 세계관이 깊이 스며든 작품들이 주를 이룸. <천룡팔부>와 같은 작품이 그 대표적 예시일 것임<sup>12)</sup>

❖ 김용 무협소설로 대표되는 중국 신무협소설의 태국 사회 전파가 지난 의의는 다양함

- 우선, 태국 대중문화콘텐츠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초기 텍스트로 시작한 무협 콘텐츠의 수용이 이후 만화, 라디오, 영화, 드라마를 거쳐 21세기 게임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로 이어지는 무협 관련 콘텐츠 수용 및 생산의 과정은 그대로 동남아시아 콘텐츠 강국 태국의 문화콘텐츠 생산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음
- 두 번째, 김용의 무협소설은 그 과정에서 방콕의 지식 계층을 중심으로만 소비되던 콘텐츠 문화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2차 저작물의 확산으로 방콕을 넘어 태국 전 지역에 걸쳐 남녀노소, 사회적 계급의 구분,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공통의 문화를 경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즉, ‘태국인’이 공유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세 번째, 김용이 가져온 무협의 세계관은 냉전기 군부 독재와 엄혹한 사회적 통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긴 시간 경험하고 있던 태국의 대중들에게 탈출구가 되었고,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음
- 네 번째, 무협의 다양한 요소들은 현재 태국인들의 언어, 문화, 인식에 깊이 스며들어 현지화되었음
- 다섯 번째, 특유의 오락성으로 인해 대중문화적 요소가 강한 김용의 무협소설은 중국어로 되어

11) 이 시기 태국은 미국과 강력히 유착한 정권 아래 반공 및 독재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통제를 당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과 중산층의 형성을 경험하고 있었음

12) 다른 한편으로 문학 수용의 관점에서 세 가지 심리적 기제, 즉 지식 추구의 심리, 동일시 심리, 오락 심리를 매개로 열풍의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도 있음(趙安珠 2013)

- 있기에 태국어로의 번역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그대로 태국 번역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음
- 아울러 이는 번역에서 그치지 않고, 태화(泰華) 문학의 형성 및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음. 태화 문학은 태국 문학계에 다양한 어휘와 소재, 인식 틀을 제공해 주었고, 광범한 독자층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예정임

## IV 냉전기 태국 화인 사회의 김용 문학 수용과 중화 정체성

### 1 태국 화인 사회의 형성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

»»

- ✔ 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국의 수코타이 왕조가 있던 1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감
  - 두 나라의 무역 관계가 번성하면서, 태국과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간의 상선 왕래도 빈번해졌고, 이 시기에 이미 중국인들이 태국에 거주하며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음. 중국인들의 태국 이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두 나라가 조공 무역에서 민간 무역으로 교역을 확대하면서 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음(裴思蘭 2004; Pimraphai Bisalputra 2015; 徐佩玲 2014)
- ✔ 방콕 왕조 초기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은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음. 그에 따라 복건성, 광둥성(廣東省), 해남(海南) 등 중국 연안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방콕 왕조 라마 3 세와 4 세 시대에 걸쳐 태국으로 대량 이주하였음. 이들이 태국으로 이주한 주요 원인은 다른 지역 화인 이주와 비슷하면서도 다름
  - 첫째, 중국 청말에 걸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기근, 반란, 전쟁,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엄혹한 환경이 있었음. 둘째, 서구 식민 제국이 통치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태국 왕실의 경우 다른 서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계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생존하기 쉽게 해준 측면도 있었음(Pimraphai Bisalputra 2015; 김종호 2021). 심지어 태국 라마 7 세는 '태국과 중국의 혈통은 질게 섞여 있으며, 나 자신도 중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음(徐佩玲 2014)
- ✔ 1840년대 아편전쟁과 남경조약 이후, 태국과 중국간 민간 교류는 더욱 크게 활성화하였으며, 중국 광둥, 복건 등지에서 매년 수만 명의 이민자가 태국으로 유입되었음
  - 청나라가 점차 쇠퇴하면서 1878년 태국과의 조공 관계가 1,000년 만에 단절되었으며, 태국은 더 이상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화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손문(孫文)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 인사들과의 교류였음. 20세기 초, 손문이 이끄는 동맹회(同盟會) 회원들이 태국에 와서 거주하던 화인들에게 반봉건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그들의 지지와 자금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음. 이러한 중국 출신 지식인들의 반제국주의 활동은 태국의 화인 신문 발전을 촉진하였고, 1900년대 초반, 태국 최초의 화인 신문이 창간되었음. 그때부터 태국의 화인 신문과 잡지들의 창간과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짐. 특히 1908년, 손문은 직접 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혁명의 사상을 전파하였고, 많은 화인들이 이에 호응하여 중국어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여 태국의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화인 독자들에게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음(徐佩玲 2014).

- ❖ 이전 태국에 거주하던 화인들은 주로 복건성과 광둥성 출신의 상인 계층 및 노동자 계층으로 소위 말하는 식자층은 아니었음

  - 그 때문에 중화의 문화적 요소들이 직접 전파되거나 향유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고, 심지어 방언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거나 상이한 지역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하나로 통합되지도 않는 경향이 강했음. 그러나 손문의 등장과 1911년 이후 신해혁명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화인들에게 민주와 공화의 사상을 전파하였고, 그들을 방언 그룹을 벗어난 중화민족, 혹은 중화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상상하도록 만들었음. 그리고 이는 태국의 왕실에게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여겨졌음
- ❖ 이에 라마 6세부터 왕실은 태국에 있는 화인 세력을 타이족 중심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고, 화인들의 중화민족 중심 민족적 정체성 함양과 민주, 공화의 사상이 왕국의 정치 활동 및 사회 통합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라마 6세는 재위 전 시기에 걸쳐 화인을 탄압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음.<sup>13)</sup> 이는 지난 방콕 왕조 개창 이후부터 유지되어 오던 친화인 정책을 뒤집은 것이고, 그 기초는 1932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근대 국가로 거듭나고 난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 시기에도 이어지는 것이었음. 물론 그 시기에도 중국 문학을 비롯한 문화의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
- ❖ 당시 태국 화인들의 주요 소통 창구는 언론이었는데, 군사 정권 내내 언론 탄압이 화인들을 괴롭혔음. 1932년에서 1934년 사이 약 30개의 신문이 폐간되었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 승리는 반화인 정책 기반 언론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적 사건이었음. 중국 대륙에 수립된 공산 정권은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화인들 역시 이러한 격변 속에서 끊임없이 통제와 압박을 받아야만 했음

  - 특히 태국의 경우 피분과 사릿 군사 정권 시기에 친미적 성향에 따라 대중국 억제의 흐름에 동참하였음. 그에 따라 많은 화인들이 사회주의 계열 활동에 대한 의심으로 체포당하거나 중국계 상점과 학교가 압수 수색을 당했으며, 중국어 신문사들이 폐쇄되었음. 1959년에는 중국에서 건너 온 상품의 유통이 금지되거나 중국 대륙의 공산당 인사와 관련된 출판물의 경우 금서로 지정되었음. 이러한 경향은 1973년 사릿 정권의 몰락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으로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됨
- ❖ 1950년대에서 1970년대 태국 화인 사회는 냉전과 군부 독재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연결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아야만 했음. 공산 정권과 관련된 모든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그 연결을 끊어야만 했음. 그러한 가운데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과 친미 정권이 들어선 대만에서 수입된 무협소설은 엄혹한 시대를 견딜 수 있게 해 준 창구의 역할을 하였음

13) 특히 라마 6세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데에 열성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내 화인들에 대한 통제 정책을 펼친 측면이 있음(裴思蘭 2004; 徐佩玲 2014)



- ❖ 태국, 특히 방콕 내에서 무협소설이 이토록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부분 방콕에 거주하던 화인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음

  - 전후 화인들의 태국 내에서의 지위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상술한 것처럼 매우 불안정하였음. 강력한 반공을 내세우는 군부 입장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공산화한 중국에 부리를 둔 이주민들을 믿을 수 없었고, 방콕을 비롯한 현지 로컬 타이인들의 반(反)화인 정서 역시 강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이 그러했듯, 방콕의 화인들 역시 상하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음. 그런 그들에게 김용의 소설은 일종의 탈출구였음
- ❖ 가장 먼저 소개된 <사조영웅전>의 경우 남송 말기 여진, 거란, 몽골 등 이민족들의 압력아래 망해가는 왕조에서 고군분투하는 협의지사들을 다루고 있고, <신조협려>는 이민족 치하 한족의 무공 고수로서 이민족들을 궤도난마 격퇴해 가는 주인공을 다루고 있다는 것 역시 화인들의 몰입감을 더해주는 것이었음

  -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 태국인들에게는 군부와 미국이라는 극복대상을 이입하면서 몰입했을지도 모름. 이 두 작품이 화인 및 태국인들에게는 유난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할 것임
- ❖ 1958년 김용의 <사조영웅전>을 시작으로 무협소설이 연재와 단행본으로 출간되던 시기는 사릿 정권기였음

  - 사릿은 “공산주의의 해악은 국가의 위기”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친미 반공 기조를 유지하던 인물이었다고, 그에 따라 상술한 각종 화인에 대한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음(趙安珠 2013). 고향인 중국과 연계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무협소설이었음
  - 2장에서 서술한 김용 문학의 태국 전파와 번역사는 화인의 김용 소설 수용의 역사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함. 다만, 상술한 태국인들이 김용과 신무협소설가들의 작품들에 열광한 이유과 화인들의 사정은 그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었음
- ❖ 김용의 무협소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중화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융통성 있게 표현되어 태국 사회, 특히 태국 화인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었음

  - 김용의 작품들은 한족 중심의 애국주의를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술한 것처럼 한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다문화주의도 나타냄. 예를 들어, <사조영웅전>에서는 주인공 광정이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녹정기>에서는 여진족 통치자인 강희제의 통치가 호의적으로 그려짐. 김용의 작품은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반영하여 중국 문화의 다면성을 보여줌. 또한 김용의 무협소설 속에는 중의학, 무술, 예술, 차, 음식, 유교, 도교, 불교 신앙 등 중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이 풍부하게 녹아있음. 이로 인해 김용의 소설은 단순한 무협 장르를 넘어서 중국 전통 문화를 화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 특히

1960-1970년대 태국에서 유행한 무협소설은 화인 사회 내에서 그들만의 '화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

- ❖ 당시 태국 화인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데다가 중국과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얻기 어려웠음. 특히 태국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3세대 화인 후예들의 경우 애초에 조상들의 땅이라고 하는 대륙에 거주해 본 경험이 없기에 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음

  - 무협소설은 이러한 화인 후속 세대들에게 중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김용의 작품들은 중국의 험준한 산맥, 광활한 대지, 사회적 갈등 등을 묘사함으로써, 태국 화교들이 중국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예를 들어, <사조영웅전>의 '화산 논검'이나 <소오강호>의 '오악검파'를 통해 중국의 산악 지형을 상상할 수 있었고, <신조협려>의 '양양의 위기(몽골과의 최후의 결사항전 에피소드)'나 <의천도룡기>에서 묘사된 몽골 지배와 애정 갈등을 통해 중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음(鄒坤怡 2024)
- ❖ 무협소설 속의 이야기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장된 시공간과 사건들을 배경으로 펼쳐지지만, 이는 오히려 디아스포라로서 고향에 대한 상상과 향수를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음

  - 김용, 고룡, 양우생 등과 같은 무협소설 작가들 또한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중국 본토를 자유롭게 탐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을 창작했기에 그들 역시 이민자의 감정을 담아 서사를 구성했고, 이 서사들은 태국 화인, 특히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음. 화인들은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인 중국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워할 수 있었음
- ❖ 2세대, 3세대 화교들에게 김용의 소설은 중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당시 화예(華裔)들은 냉전 시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중국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음. 그러나 김용의 무협소설은 그들에게 중화 문화를 이해하고, 상실했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사조영웅전>의 '곽정'이나 <의천도룡기>의 '장무기'와 같은 영웅적 인물들은 국가와 정부를 넘어선 정의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인물로, 화인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기도 했음(鄒坤怡 2024). 2세대, 3세대의 경우 태국에서 태어나 서구식 교육을 받아 사회적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하기 힘들었음. 이런 그들의 처지에 소위 강호의 영웅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음
- ❖ 다른 한편으로, 김용의 무협소설 속 영웅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지만, 정치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민중을 보호하며 자신의 정의를 실현함

  - 예를 들어, <사조영웅전>에서 '곽정'과 '황용'은 무능한 태수를 대신해 양양성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신조협려>에서도 그들의 후손들이 끝까지 양양을 수호함. 아울러 그들은 국가와 정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민중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킴. 이들은 정부와의 협력 없이도 영웅으로서 찬양받으며, 이는 태국 화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음. 게다가 소설 속 '협의지사'들은 정치적 권력을 잡는 대신, 결국에는 강호를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됨. 이러한 권위와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행보는 그럴 수 없는 처지의 태국

화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에게 국가와 정부가 없는 이주민으로서 중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sup>14)</sup>

- ❖ 1950년대 이후 당시 태국의 화인 청년들은 중국과의 단절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음

  - 공산주의 위협과 냉전 시기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낙후되고 야만적인 것으로 그려졌고, 이로 인해 태국 화인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었음.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중국과 화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기를 원했지만, 젊은 세대는 점점 그 정체성에서 멀어져 갔음. 이때 김용의 무협소설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등장해, 화인 청년들에게 그들이 상실했던 정체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음
- ❖ 또한, 무협소설 속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은 태국의 2세대 화인 청년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음

  - 예를 들어, <천룡팔부>의 주인공 ‘소봉’은 한족과 이민족 사이에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이중 정체성으로 인한 비극적 운명을 겪음. 소봉은 자신의 출생과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 받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던 화인 청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 2세대 화교들도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소봉’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러한 부분들 역시 홍콩과 대만 출신 화인 작가들만이 창작해 낼 수 있는 서사였을 것임
- ❖ 김용의 무협소설은 태국 화인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중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

  - 무협소설 속 영웅적 인물들은 화인 청년들이 상실할 뻔했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에게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했음. 김용의 무협소설은 화인들에게 중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중화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 혼란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 또한 김용을 비롯한 신무협소설의 전파는 화인들에게 문학적 측면에서 태국 사회에 적응하고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데, 바로 태화(泰華) 문학의 탄생임

### 3 태화 문학의 현지화에 끼친 무협소설 열풍의 영향



-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 현대 문학 작품 번역이 사회주의 계열 태국 문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음

  - 1950년대에 노신의 <아 Q 정전>이 다시 번역 및 출간되기 시작하며 중국 현대 문학이 태국에서 소개되었으나, 냉전 시기 태국 정부의 강력한 반공 정책으로 인해 중국 현대 문학의 확산은 중단되었음. 1952년, 태국 정부는 ‘반공산주의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14) 한편으로 김용의 문학은 유가적 가치인 효와 충, 의와 덕, 예를 강조하지만, 일상에서의 권위와 금기를 깨는 데에도 서슴없었고, 이는 그대로 현지 화인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쾌감으로 작용했을 것임. 예를 들어 <신조협려>에서 남녀 주인공은 사제관계지만, 결혼을 하기도 하고, <녹정기>의 주인공 위소보는 영리하고, 잇속을 챙기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결국 성공을 거두기도 함. 이는 중국 출신으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소설을 쓴 김용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임

억압했고, 중국 현대 문학 작품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금지되었음 (Chinvanno 1992). 이로 인해 중국 현대 문학 번역의 흐름은 급격히 중단되었음

- ❖ 1950년대와 1960년대 태국에서는 중국어 신문이 폐쇄되고, 중국어 교육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중국 문학의 전파가 막히기 시작했음

  - ‘국가 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중국계 학교들은 중국어 수업 시간을 줄여야 했고,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현대 문학의 전파 경로도 제한되었음. 1960년대 초 군부 독재 정권이 완화되며 태국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1973년 10월 14일 탐마삿대학교에서 열린 ‘중국 대륙’ 전시회를 통해 〈모택동선집〉이 비밀리에 출판되고 중국의 정치 및 철학 이론을 태국에 유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1976년 10월 6일 쿠데타 이후, 중국 관련 출판물들은 다시금 금지되었음(徐佩玲 2014)
- ❖ 이와 대조적으로, 상술한 것처럼 홍콩과 대만의 무협소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태국에서 번성했음

  - 무협소설은 태국 화교 사회에서 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 잡았으며, 김용과 고룡의 무협소설이 널리 읽혔음. 이 시기 태국에 이주한 중국인들이 점차 태국에서 정착하며 문화 활동이 서서히 발전하였고, 중국의 〈삼국연의〉, 〈수호전〉 같은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노신, 모순, 파금의 현대 문학, 그리고 무협소설이 태국에 유입되었음. 태국 내 화인 신문과 출판사는 이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으며, 신문의 문예 부록은 문학 창작의 기반을 제공하여 ‘태화문학’이라 불리는 현지 화문(華文) 문학의 성장에 기여했음
- ❖ 일반적으로 ‘태국화문문학’, 혹은 ‘태화문학’의 탄생 및 발전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바 있음(趙朕 2008; 翁智琦 2021; 張長虹 2006; 劉小新 2004)<sup>15)</sup>

  - 일반적으로 냉전기 탄생과 1차적 발전을 겪은 태화문학의 절정, 황금기는 1970년대 태국과 중국 사이의 국교 수립 이후 1980년대 이후인 것으로 보고 있음(趙朕 2008). 다른 한편으로 태국의 화인 문학가들이 홍콩과의 교류를 통해 냉전기 태화문학의 싹을 틔운 것으로 보는 관점 역시 있음(翁智琦 2021).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태화 문학에서 냉전기 홍콩 및 대만에서 수입된 무협소설 열풍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냉전기 태국 내에서의 태화 문학의 싹은 상술한 것처럼 오히려 수많은 무협소설의 번역과 전파, 화인 및 태국 사회 양측이 동시에 경험한 대중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 ❖ 그런 측면에서 태화 문학의 기반은 1930년대 이후 성립되었다가,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첫 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중국의 5·4 운동과 중일 전쟁은 태국 내 화인 작가들에 의해 반영되었으며, 그들은 ‘항일 운동’과 구국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학 창작 활동을 활발히 펼쳤음. 이러한 활동은 문학적 현실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태국 내 화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徐佩玲 2014).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 정부의 반공 정책과 ‘태국화’ 경제 계획으로 화인 학교와 신문이 폐쇄되었고,

15) ‘태화문학’은 사전적 의미로는 태국 내에서 화인들에 의해 중국어로 창작된 문학 사조를 가리키지만, 학술계에서 논의되는 맥락은 초기 그러한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태국 현지 사회와 화인 사회가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혼종적 성격의 문학 사조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태화 문학은 오랜 기간 동안 동면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그러다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이후, 태국 정부는 화인 정책을 조정하여 이중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헌법에 명시하였음(Wilson 1967). 예를 들어, 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태국 국적을 가지며, 모든 태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이 조치는 태국인과 화인 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협력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음

❖ **그 결과 많은 태국 화인들이 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현지에서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눈앞에 두게 되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태화 문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초기 태화 문단에서는 문학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했었음. 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계들은 태화 문학이 중국 문학의 지류라고 주장하며, 조국과의 연관성, 향수 등을 담은 작품을 계속해서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에서 태어나 자란 화인 작가들과 2차 대전 이전 태국에 정착한 일부 중국계 작가들은 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음. 이들은 중국어와 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이해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태국화되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갓 이주한 작가들보다 두 국가 간 상이한 문화적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음. 이들은 창작에서 현지화 경향을 보이며, 문학은 현지의 생활 환경과 사회 발전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徐佩玲 2014). 그리고 여기에는 일찍부터 중국어와 태국어 모두 현지에 소개되어 온 무협소설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중국 문학 작품의 태국어 번역에서 무협소설은 빼놓을 수 없으며, 태화 문학에서 이 번역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분명하기 때문임

❖ **이런 논쟁을 거치며 태화 문학은 점차 독립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었고, 중국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현지 문학과 융합되었음. 비록 태화 문학이 중국어로 창작되었으나, 태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다원적 작품들이 탄생했음. 이 과정에서 무협소설의 영향은 매우 컸음**

- 무협소설은 화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중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태국 내 현지 사회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융합하는 문학적 매개체 역할을 했음. 즉, 태화 문학의 발전과 현지화에는 홍콩과 대만의 무협소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무협소설은 태국 화인들이 중국 문화를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현지 문학과 융합을 촉진시키며 태화 문학의 본토화에 기여했음. 무협소설의 서사적 상상력과 영웅적 인물들은 화인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면서도 현지 사회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태화 문학은 독특하고 다원적 작품들로 발전하게 되었음

❖ **근본적으로 태화 문학의 발전과 현지화에는 김용 무협 문학의 도입과 번역, 현지화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함. 특히 독자로서 화인과 태국인은 냉전기 군부 독재의 통제 속에서 같은 시기를 같은 콘텐츠를 향유하며 보내왔다는 공통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임. 이는 태국과 화인의 융합, 현지화의 방향을 추구하는 태화 문학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함**

- 또한 초기 무협의 도입은 번역과 함께 진행되었기에, 현재 태국어에는 이 번역된 중국어의 영향이 상당부분 남아 있음. 이는 중국어와 태국어의 융합이라는 태화 문학의 기반을 마련해 준 계기이기도 함. 아울러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주로 화인들 위주로 무협 문학이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태국 사회의 경우 현지인들이 화인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무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향은 화인들의 현지 사회 융화 및 적응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음. 또한, 대중문화적 관점에서도 이 김용으로부터 출발한 무협 세계관이 21세기 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Yap 2023)

## V 결론

- ✔ 본 연구는 냉전기 태국에서 김용을 비롯한 중국 무협소설이 태국 화인 사회와 현지 대중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특히 1960-1980년대는 태국에서 김용 소설을 필두로 한 신무협소설 열풍이 불었던 시기로, 이는 태국 내 화인 사회뿐만 아니라 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었음. 김용의 무협소설은 태국 화인들에게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중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냉전기이자 군부 독재 시기, 태국 화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었음. 김용의 소설 속에 담긴 유가적 가치와 도교, 불교적 세계관은 화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문화를 상상하고 그것을 통해 초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였음
- ✔ 또한, 김용 소설은 태국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음. 이는 군부 독재 정권하에서 억압된 대중이 무협소설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의와 영웅주의를 구현하는 주인공들의 서사를 통해 위로와 대리만족을 얻었기 때문임

  - 김용 소설은 태국 대중들이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무협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중요한 도피처 역할을 하였음. 무협소설의 주인공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당시 억압적인 군부 정권 아래에서 불만을 품은 태국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음. 아울러 김용의 무협소설은 텍스트 기반의 문학 작품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2차 콘텐츠로 변환되었음.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은 태국의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음.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홍콩과 대만에서 제작된 무협 영화와 드라마들이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태국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음
- ✔ 결론적으로, 김용의 무협소설이 태국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문학적 오락을 넘어,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 태국 화인들은 김용의 소설을 통해 자신들의 중화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태국 대중들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 무협소설을 통해 정의와 영웅주의를 경험하였음. 이로 인해 김용의 무협 세계관은 태국의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참고문헌

### 한국어

- 김명석. (2009). “홍콩 대중문학에 나타난 홍콩인의 정체성 연구 1 - 무협소설을 통한 김용의 정체성 찾기”. 中國學論叢, 25 집. 113-139.
- 김종호. (2017). “‘중화성’ 모색을 위한 시도들 - 서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 경향 분석-”. 중국근현대사연구. 73 집. 169-173.
- 김종호. (2021). “화교이야기”. 너머북스.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 조홍선. (2012). “김용소설 중국 대륙 진출의 의미 고찰”. 中國文學研究, 48 집. 99-117.
- 우강식. (2005). “김용 무협소설의 사회 문화적 함의 고찰”. 中國語文學, 45輯. 509-532.
- 우강식. (2020).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江湖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中國學, 第 70 輯. 365-386.
- 우강식. (2021). “김용 무협소설에 나타난 민족관에 관한 고찰”. 中國學, 第 77 輯. 409-430.
- 유경철. (2004). “김용 소설의 문학적 성취와 공헌을 둘러싼 논의의 고찰”. 中國文學, 42 집. 199-217.
- 하유기. (2024). “김용 무협소설의 한·일 수용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국어

- 裴思蘭. (2004). “魯迅和金庸在泰國的接受之比較”. 青島大學 碩士學位論文.
- 閉 曄. (2011). “中國文化對泰國文學的影響”. 文學教育, 2011.07. 57-58.
- 陳天驊, 朱剛琴. (2020). “中國文學作品在印尼的譯介與傳播”. 中國文化譯研網. 2020-08-20.
- 鄧笑然. (2022). ““文化中國”視域下的金庸影視東南亞傳播研究”. 西北大學 博士學位論文.
- 範 軍. (2020). “華文武俠小說在泰國的傳播與影響”. 台灣東南亞學刊, 15 卷 1 期. 109-136.
- 範 軍. (2022). “金庸小說闖泰國江湖 射雕電玩影響新一代”. 亞洲周刊, 2022 年 08 月 14 日.
- 何明星. (2011). “從“三國演義”到魯迅, 中國文學在泰國的傳播”. 濟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 21 卷 第 6 期. 45-52.
- 李學仙. (2011). “試論金庸武俠小說在泰國的傳播”. 重慶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雲飛. (2021). “金庸武俠小說在新加坡的傳播與接受”. 華文文學, 5 期.
- 劉小新. (2004). “論泰國華文文學的歷史發展及其總體特征”. 華僑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集. 96-103.
- 王苗芳(泰). (2009). “中國武俠小說對泰國的影響”.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 翁智琦. (2021). “冷戰時期泰國華文文學與香港因素— 以長篇小說為例—”. 中國學. 第 77 輯. 49-68.
- 香港中央圖書館 香港文學資料室. (2013). “金庸的武俠 文學的江湖”. 圖書館資源選介.
- 徐佩玲(泰). (2014). “中國現代文學對泰國影響之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 張長虹. (2006). “試論泰華新文學在泰國文學格局中的地位”. 華文文學, 74. 101-106.
- 張建智. (2016). “儒俠金庸傳”. 獨立作家.
- 趙安珠(จิราภรณ์ เดียวทรัพย์เจริญ). (2013). “《射雕英雄傳》在泰國廣泛傳播的原因分析. Journal of Liberal Arts Review(วารสารศิลปศาสตรปริทัศน์) 8 (16), 49-58.
- 趙·朕. (2008). “泰華文學的三次新崛起”. 東南亞華文文學研究. 4月. 35-37.
- 鄭垂莊. (2021). “二十世紀以來越南社會的臺灣大眾文學接受現象”. 臺灣東亞文明研究學刊, 第18卷第2期. 181-210.
- 鄭淑惠. (2011). “試論《三國演義》在泰國的傳播”. 重慶大學 碩士學位論文.
- 鄒坤怡. (2024). “金庸誕辰百年, 假如江湖在暹羅: 泰國的武俠小說”. 澎湃新聞, 2024-03-07.

## 영어

- Chinvanno, A. (1992). “Towards an Anti-Communist Party, 1951-1952”. In Thailand's Policies towards China, 1949-54. Palgrave Macmillan.
- Han, Jianghua. (2021). “The Chinese Wuxia Culture in Thailand: Dissemination and Influence”. Comparative Literature: East & West. 1-14.
- Leo Suryadianta. (2007). “金庸武俠小說在印尼”. <https://read01.com/zh-tw/kEKD8gy.html#.XyOtzSgzblk>  
(검색일자: 2024년 9월 13일)
- Pimpraphai Bisalputra and Jeffery Sng. (2015). “A History of the Thai-Chinese”. Didier Millet.
- Wilson. David A. (1967). “China, Thailand and the Spirit of Bandung (Part 2)”. The China Quarterly. 31. 96-127.
- Yap, Gwendolyn. (2023). “The Power of Fantasy: Southeast Asians Develop an Obsession with Chinese Xianxia Dramas”. ISEAS Perspective 44.

## 일본어

- 花尻 奈緒子. (2006). “中國大陸における金庸研究”. 三重大學人文社會科學研究科地域文化論專攻地域言語文化論專修. 1-47.

[부록-1] 김용 무협소설 중 〈옥룡〉 3부작의 태국 TV/영화 방영 및 상영 목록

연도	형식	배급사 및 채널	비고
사조영웅전			
1958	영화	香港無線	
1976	TV	香港佳視	
1977	영화	邵氏公司	
1983	TV	香港無線	
1988	TV	台灣中視	
1992	TV	香港無線	
1993	TV	香港無線	
1993	영화	學者電影公司	〈射雕英雄傳之東成西就〉
1994	TV	香港無線	
1994	TV	香港無線	〈射雕英雄傳之南帝北丐〉
1994	영화	學者電影公司	〈東邪西毒〉
2003	TV	중국 制片人張紀中	
2008	TV	중국 上海唐人公司	
신조협려			
1960	영화	香港粵語長片 4 集	
1976	TV	香港佳視	
1982	영화	邵氏公司	
1982	영화	邵氏公司	〈楊過與小龍女〉
1983	TV	香港無線	
1984	TV	台灣中視	
1995	TV	香港無線	
1995	TV	□新加坡電視機構	
1998	TV	□新加坡電視機構	
1998	TV	台灣台視	
2003	만화	香港無線	
2006	TV	중국	
의천도룡기			
1978	영화	邵氏公司	
1979	TV	香港無線	
1984	TV	台灣台視	
1986	TV	香港無線	
1993	영화	永盛電影公司	〈倚天屠龍記之魔教教主〉
1993	TV	台灣台視	
2001	TV	香港無線	
2003	TV	중국	
2008	TV	중국	

출처: 李學仙, (2011). “試論金庸武俠小說在泰國的傳播”. 重慶大學 碩士學位論文

[부록-2] 무협 용어의 태국어화 현상 예시

중국 성어	태국어	해석
不知天高地厚	ไม่รู้จักรฟ้าสูงแผ่นดินต่ำ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른다.
不見棺材不落淚	ไม่เห็นโลงศพมิหลั่งน้ำตา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	หนทางพิสูจน์ม้า กาลเวลาพิสูจน์คน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天外有天 人外有人	เหนือฟ้ามีฟ้า เหนือคนมีคน	하늘 위에도 하늘이 있고, 사람 밖에도 사람이 있다.
癩蛤蟆想吃天鵝肉	คางคกเห่อเหิมอยากกินเนื้อห่านฟ้า	미친 두꺼비가 백조 고기를 먹으려 한다.
人算不如天算	คนคำนวณมิสู้ฟ้าลิขิต	인간의 계획은 하늘의 계획만 못하다.
如影隨形	ดุจเงาตามตัว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有福同享 有難同當	มีสุขร่วมเสพ มีภัยร่วมต้าน	복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겪는다.
有仇必復 有恩必報	บุญคุณต้องทดแทน ความแค้นต้องชำระ	원한은 반드시 갚고, 은혜는 반드시 보답한다.
君子報仇 十年未晚	วิญญูชนล้างแค้น สิบปียังไม่สาย	군자는 복수할 때 십 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天堂有路你不走 地獄無路你自投	สวรรค์เปิดทางให้ไม่เดิน นรกไร้ประตูต้นแสมา	천국에 갈 길은 있는데 안 가고, 지옥 갈 길은 없는데 스스로 찾아간다.
大丈夫敢做敢為	ลูกผู้ชายกล้าทำกล้ารับ	대장부는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한다.
大丈夫能屈能伸	ลูกผู้ชายยัดได้หดได้	대장부는 굽힐 때 굽히고 펴 때 펴 수 있다.
以小人之心 度君子之腹	เข้าใจคนทรามไปวัดใจวิญญูชน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속을 헤아린다.
有眼無珠	มีตาหามีแววไม่	눈은 있으나 눈동자가 없다.
行不改名 坐不改姓	นั่งไม่เปลี่ยนชื่อ ยืนไม่เปลี่ยนแซ่	다니는 곳이 바뀌어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앉는 곳이 바뀌어도 성을 바꾸지 않는다.
天下沒有不散的宴席	ไม่มีงานเลี้ยงใดไม่เลิกกรา	세상에 끝나지 않는 연회는 없다.
士可殺不可辱	ลูกผู้ชายฆ่าได้หยามไม่ได้	선비는 죽을 수는 있으나, 모욕당할 수는 없다.
大丈夫流血不流淚	ลูกผู้ชายหลังเลือดไม่หลังน้ำตา	대장부는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劍在人 劍亡人亡	กระบี่อยู่คนอยู่ กระบี่หายคนตาย	검이 있으면 내가 있고, 검이 없으면 내가 없다.
血濃於水	เลือดข้นกว่าน้ำ	피는 물보다 진하다.
玉不琢 不成器	หยกดีไม่ผ่านการเจียรไน ย่อมไม่อาจเป็นเครื่องประดับได้	옥은 깎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老天有眼	สวรรค์มีตา / ฟ้ามีทิพยเนตร	하늘이 다 보고 있다.
天下無難事 只怕有心人	ต่ำได้ไร้เรื่องลำบาก กลัวแต่คนมีความตั้งใจ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고, 마음 먹은 사람만 두렵다.
謀事在人 成事在天	ความสำเร็จอยู่ที่ฟ้า 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อยู่ที่คน	일은 사람이 꾀하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隔牆有耳	หน้าต่างมีหู ประตูมีช่อง	벽 너머에도 귀가 있다.

출처: 王苗芳(泰). (2009). “中國武俠小說對泰國的影響”.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에 나오는 내용을 표로 정리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4년 13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박웅진 (태국비즈니스센터장)

집필자 한국태국학회 (김종호, 서강대)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4년 10월 01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http://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http://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